



## 탐코리아서비스 한윤덕 후원자를 만나다

글: 최하나 사원(아가페문화재단)

흔히 무언가 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오늘부터는 기도해야지, 새벽예배에 나가야지, 선교헌금을 해야지'라는 다짐을 해도 바쁜 삶 속에서는 쉽게 잊고 살기 마련인데, 방송선교에 동역하겠다는 마음으로 C채널방송 사옥에 직접 찾아오신 후원자님이 계시다. 사업으로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는 탐코리아서비스 한윤덕 후원자님을 만나보았다.

**직접 찾아 오셔서 후원을 신청해 주셨어요.**

C채널방송의 사역이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잖아요. 항상 마음에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2011년에 후원을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하고 회사 직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업하느라 바빠서 막상 실천으로 옮기는게 쉽지 않더군요. '더 미루다가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먹고 사옥으로 직접 찾아간 거죠.



### 특히 회사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2009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믿어온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다보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회사도 믿음의 기업이라는 모토로 경영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직은 직원들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진 못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회사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목표는 전 직원이 방송선교에 참여하는 것인데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 탐코리아서비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건물종합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건물 청소를 담당하거나 주차, 경비 등을 체계적인 서비스로 관리해 드리는 일이에요. 2001년도에 친한 선배가 동종 업종에 있었는데 영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청소를 배웠고, 나중에 독립해서 탐코리아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 그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크리스천 대표로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예전에 영업을 할 때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여서 직원들과 회식도 하고 거래처와의 미팅도 자주 가졌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술을 끊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아, 난 왜 이걸 못 끊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결심하고 내려놓았죠. 그리고 명함 뒷면에 잡인 16장 3절(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말씀을 넣었어요. 명함에 말씀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명함을 교환할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자’. 사업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

는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말하지 않도록 크리스천으로서 최대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청소용역업은 80%가 인건비로 소진되는데 이 부분들도 투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 후원자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진 달란트로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강단 청소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거나 청소의 방법을 잘 모르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대리석이나 타일 왁스작업은 기계작업이 꼭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 모르시기도 하죠. 그래서 5년 후부터는 이러한 봉사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거래처 집사님의 도움으로 저희 교회의 대리석 바닥을 청소한 적이 있어요. 꽤 넓은 공간이었는데 힘들게 광을 내고 나니 성전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의 기쁨을 간직하며,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 C채널방송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나서 안부차 전화를 걸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친구여서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라고 물었는데 화를 내더군요. 알고보니 누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대요. 통화하는 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은 성경을 왜곡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에 대해 더 명확히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곳에 못가게 막는 일 뿐 아니라 이미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싶어요. 어쩌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한국 기독교 전체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C채널방송은 이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후원자로서 더 많이 중보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탐코리아서비스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강동구 지역의 양로원,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청소, 방역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